

정해인 “연애? 지금은 김고은과 하고 있는 것”

김고은 “정해인과 연애? 친오빠 같아요”

“삶과 연기 연결하지 않아...정확하게 분간”

배우 정해인이 연애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김고은씨와 연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재치있게 답했다.

정해인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영화 ‘유열의 음악앨범’ 관련 뉴스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연애는 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김)고은씨와 연애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한 후 웃었다.

이어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삶과 연기를 연결하지 않는다. 연기 할 때는 최대한 상대 역에게 최선을 다한다. 끝나면 허전하지...”이라며 “작품이 끝나고 연이 닿으면 만나는 건데, 이상하게 나는 일이다 보니까 연기를 직업으로 생각한다. 배우라는 직업이다. 타이틀일 뿐이다. 정확하게 분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간 정해인과 배우 정해인을 분간한다. 그래도 힘들다.

작품을 끝내면 밀려오는 공허함 허전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해인은 밥 잘사주는 예쁜 누나 ‘봄밤’에 이어 ‘유열의 음악앨범’까지 연이어 멜로를 찍으며 느린 장르적 매력에 대해 “사랑하는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게 즐거움이다. 사랑하면 이별의 아픔도 있고, 힘든 날 슬픈 날도 있는데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것이 멜로에 많이 녹아 들어있는 장르여서 힘들지만 재밌는 거 같다”고 밝혔다.

정해인은 ‘유열의 음악앨범’에서 우연히 들린 제과점에서 만난 미수를 좋아하게 된 현우 역을 맡았다.

‘유열의 음악앨범’은 1994년 유열이 라디오 DJ를 처음 진행하던 날 엄마가 남겨준 빵집에서 일하던 미수(김고은 분)가 우연히 찾아 온 현우(정해인 분)를 만나 설레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오는 28일 개봉한다.

뉴스1



“실제 연인 같이 보이려고 애써”

배우 김고은이 정해인인 ‘현재’는 김고은과 연애를 하는 것 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쑥스러워 하면서 “친오빠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고은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영화 ‘유열의 음악앨범’ 관련 뉴스1과의 인터뷰 정해인이 연애 질문에 “지금은 김고은과 연애를 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웃음을 터뜨리며 “어떻게 대답해야 하느냐. 일단 감사하다”며 “그렇다고 같이 연애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팬들이 너무 무섭다”고 답해 웃음을 샀다.

이어 그는 정해인과 실제 연인 같다는 반응을 얻는 것에 대해 “그렇게 보여야 한다. 그렇게 보이려고 애썼다”면서 “(정해인은) 너무 친 오빠같다. 지금은 같이 다니면 친오빠처럼, 사실은 친오빠보다는 친구 같은 느낌이다. 모르겠다. ‘유열의 음악앨범’을 같이 해서 그런

지 연상의 느낌보다는 친구 같은 느낌으로 더 다가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정해인과 호흡에 대해서는 “너무 좋았다. 서로가 성격이 좀 상대가 불편한 걸 못 견디는 스타일이다. 워낙 배려심도 있고 서로 현장에서 웃고 떠들면서 잘 찍었다”고 했다.

앞서 정해인과 김고은은 tvN ‘도깨비’로 한 차례 만난 적이 있다. 김고은은 “정말 반가웠다. ‘도깨비’ 이후에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작품을 했던 상태여서 그분 이야기가 오갈때 너무 반가웠다. 빨리 만나게 될 줄 몰랐다”고 설명했다.

김고은은 ‘유열의 음악앨범’에서 돌아가신 엄마가 남긴 제과점을 지키고 다 현우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감정에 빠지게 되는 미수 역을 맡았다.

뉴스1

안재현 ‘카톡’ 공개 준비설 → 구혜선 “카톡 안 해요, 배신자야”

현재 결혼 생활 및 이혼 절차 두고 공방 벌여



배우 구혜선(35)이 남편 안재현(32)이 ‘카톡’ 반박을 준비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 ‘카톡 안 한다’라는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끈다.

22일 오전 한 매체는 안재현 측의 한 지인의 말을 빌려, 안재현이 구혜선의 폭로에 그간 구혜선과 나눴던 카톡(카카오톡, 메시지 SNS) 대화 내용을 공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중의 관심이 안재현 측이 공개할 ‘카톡’에 쏠리자, 구혜선은 이날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 카톡 안해요~ 괜한 준비 마셔요 배신자야”라는 글을 게재했다.

현재 구혜선과 안재현은 결혼 생활 및 이혼 절차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18일 구혜선이 인스타그램에 안재현이 변심했다며 안재현과 나눈 문자 메시지 일부를 공개하면서 이번 사건이 알려졌다.

이후 양측의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가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한 상태라고 입장을 냈다. 하지만 구혜선 측은 20일 밤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이혼에 대한 ‘합의’는 했지만 ‘합의’는 하지 않았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배우자인 안재현의 변심, 주취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침묵하던 안재현은 지난 21일 밤 처

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안재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과정과 앞뒤를 없애고 단편적인 부분만 공개해 진실이 왜곡돼 주변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데다 어젯밤 주취 중 못어성들과 연락을 했다는 의심 및 모함까지 받은 이상 더 이상은 침묵하고 있을 수 없어 이 글을 쓰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 글을 통해 안재현은 결혼 생활을 험겨워 하던 중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별거를 했다면서 지난 7월 30일 이혼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혜선이 정한 이혼 합의금(가사 일당, 결혼 당시 기부금 포함)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안재현은 “이는 결코 저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했던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었다”면서도 “하지만 며칠 뒤 구혜선님은 처음 합의했던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재현은 별거 후 혼자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 구혜선이 무단으로 들어와 휴대전화기를 뒤흔치는 일이 있었고, 이로 이혼을 재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안재현은 결혼 생활 중 1년4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우울증약을 복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이날 밤 구혜선도 안재현의 주장에 조목 조목 반박하면서 기존의 ‘안재현이 주취상태에서 다수의 여성들과 연락했다’는 주장도 재차 강조했다.

구혜선은 ‘기부금’을 받았다는 안재현의 주장에 대해서 “기부금은 모두 제 비용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받을 돌려 달라고 말한 금액”이라고 전했다. 또 “안재현씨가 사는 집의 모든 인테리어 비용과 가사노동 모두 100% 자신의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제가 하루 3만원씩 3년의 노동비를 받은 것이지 이혼 합의금을 받은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구혜선은 “남편은 차츰 정신이 나 아지자 술을 좋아했고 술에 취해 여성들과 통화하는 것을 제 눈으로도 보고 제 귀로도 들었다”라고 했다.

뉴스1

김희철, ‘미운 우리 새끼’ 합류 모벤저스도 놀란 ‘158차원’ 일상

‘미운 우리 새끼’에 4차원을 넘어선 ‘158차원’ 초특급 ‘미우새’가 등장한다.

오는 25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에는 동안 외모 때문에 매번 동생으로 의심받지만 알고 보면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서른일곱의 김희철이 합류한다.

특히 방송 최초로 공개되는 희철의 어머니도 새로운 모벤저스로 함께 한다. 단아하고 수줍음 많은 소녀 같은 모습에 스튜디오에선 “희철이와 너무 닮았다”고 모두 입을 모았다. 하지만 희철과 달리 단아한 줄 알았던 희철의 어머니는 “돌직구”로 김희철도 당황시키는 반전 입장을 밝혔다.

한편 ‘모벤저스’(모벤저스)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인 아들의 일상이 공개되자, 희철의 어머니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다.



또한 희철의 어머니도 아직 가보지 못한 우주대스타 김희철의 새집이 소개되자, 모벤저스는 “너무 하얗다!”라며 경악했는데, 지금까지의 미우새와는 달리 단지 한들 없이 하얀 화이트 하우스’에 결별 저장까지 놀랐을 정도였다고 한다. 25일 밤 9시 5분 방송.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광주광역시